



주간통일정세 2008-33(2008.08.11~08.1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3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 김정일, 군부대 시찰(8/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826부대 산하 구분대(대대급 이후 부대)를 시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군부대 방문에는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
 - * 올해 들어 10일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공개시찰은 총 69회로, 군부대 방문 및 군관련 활동이 38회(55%), 경제부문 20회(29%), 외빈 접견 등 대외활동 5회(7%), 기타 6회(9%) 순

나. 정치 관련

- **北학술지, IMF, 美의 세계제패 금융도구(2008년 2호, 정치법률연구)**
 -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8.2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도 오늘도 미제의 세계제패 전략을 금융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도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 학술지는 ‘국제통화기금 대기차관협정의 반동적 본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는 국제통화기금을 통하여 세계 각국 특히 발전도상 나라들에 대한 금융적 지배와 약탈을 강화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
 - 학술지는 이어 IMF의 대기차관협정은 “성원(회원)국들을 재정금융적으로 지배하고 예측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됐다며 “국제통화기금은 대기차관협정을 포함하는 낡고 불공평한 법 제도들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긍정적인 기구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
- **北, 美 ‘유화전략’에 경계심 강조(8/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앞세워 사상을 무너뜨리는 “유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계”와 “극복”을 강조, 노동신문은 ‘유화전략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이라크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켜 무저항 상태에 빠뜨리고 이라크를 쉽사리 가로타고 앉았던” 미국이 “이런 수법으로 우리 공화국(북한)을 어찌보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 신문은 이런 “유화전략은 당근과 채찍전술에 바탕을 둔 침략과 간섭전략”이고 “당근전술로 회유기만하여 이 나라들이 안일해이해지고 무경각해지면 무력 간섭과 침략을 강행한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농민단체, “식량절약사업 동참” 강조(8/16, 조선중앙방송)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은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자력갱생” 뿐이라며 농민들을 대상으로 “식량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방송은 “농근맹 중앙위원회가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처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자기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농근맹원들을 더욱 분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나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내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다”고 보도
- 특히 이 단체는 “식량절약사업에 모든 농근맹원이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계획”을 세워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해설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언
 - * 농근맹은 농장원과 농업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맹원수는 130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北 “강성대국 건설 총공격전” 독려(8/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신문은 광복 63주년을 기념한 ‘위대한 수령의 조국해방 업적은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화국(북한) 창건 60돌(9.9)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드세찬 공격전을 벌여... 자랑찬 성과를 안고 승리의 대축전장에 긍지 높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
- 또 신문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할 수 있게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계속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며 전투훈련 강화, 군부대 지원 확대 등을 주장

● 北학술지 ‘폭리·블로소득 계약’ 단속 강조(2008년 2호)

- 학술지가 개인간 계약관계에서 ‘자본주의적 요소’ 등을 철저히 척결할 것과 위법적인 거래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 계약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할 데 대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별적 공민들”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해하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이며 ▲위법적인 민사거래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北 “강성대국 건설 총돌격전” 촉구(8/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정권수립 60주년(9.9)이 되는 9월을 “커다란 성과”로 맞이해야 한다면서 전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돌격전”, “공격전”을 벌일 것을 촉구
 - 이어 신문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이용해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면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며 “자력갱생”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9·9절’맞아 郡에서도 집단체조 공연(8/16, 조선중앙TV)
 - 북한 정권 수립(9.9) 60주년을 맞아 대(大)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별도의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어’가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공연 중인 가운데 군(郡) 단위에서도 소규모 집단체조가 만들어져 공연되고 있음.
 - 조선중앙TV는 16일 저녁뉴스를 통해 황해남도 연안군에서 최근 집단체조(매스게임) ‘장군님(김정일)과 연백별’이 진행됐다고 보도
 - * 북한에서 집단체조는 ‘아리랑’의 평양 공연 이외에도 평양남도(2005.10)와 자강도 강계시(2007.5)에서 도 단위로 제작돼 공연한 바 있으나 군 단위에서 만들어져 공연한 것이 보도된 것은 이례적
- 北, 황북 사리원에 주택 1천가구 건설(8/17, 평양방송)
 -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1천 가구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또한 평안북도 안주시에서는 수천㎡에 2층 규모의 수영장과 이발소, 남녀 목욕탕 등의 문화시설을 갖춘 ‘은덕원’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
- 北배구팀, 중·러와 공동 훈련(8/17, 조선신보)
 - 북한 배구팀이 올해 하반기 중국, 러시아 배구팀과 공동 훈련을 하고 국제대회에도 참가한다고 조선신보가 조용기 북한배구협회 서기장의 말을 인용해 17일 보도, 북한 여자배구팀은 8월 중 중국 랴오닝(遼寧)성 여자배구팀과, 11월에는 북한 남자배구팀이 평양에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지나모남자배구팀과 각각 공동 훈련을 한다고 신문은 보도
- 北, 전통 가정생활·풍습 도서 보급(8/16, 통일신보)
 - 북한에서 전통적인 가정 생활과 풍습을 소개하는 ‘조선민속가정생활풍습’이라는 책이 최근 발간돼 보급되고 있다고 통일신보가 보도, 이 책은 가족의 구성, 상속 풍습, 친척의 구성과 범위, 성과 본, 족



보, 혼인 풍습, 아기 출생후 풍습, 상례와 제례 풍습, 가정 예절, 풍습의 계승발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 설, 정월대보름, 추석은 비롯해 조상 대대로 전해진 민속명절은 물론 민속관련 토막상식과 일화, 세계 여러 나라 민족 생활풍습도 소개

● 북, 日강점기 ‘선구자’ 여가수들 소개(8/16,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일제 강점기 신극운동단체인 ‘토월회(土月會)’ 소속 윤심덕, 리애리수, 리정설 등 여성가수들을 “현대 가요보급의 선구자”라며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소개
- 신문은 먼저 우리 나라 현대가요의 첫 여가수로 알려진 윤심덕이 1920년대 중엽 일본에 건너가 활동하다가 귀국 길에 극작가인 남편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진 사실을 소개하며, 그녀가 “죽음으로 일제에 항거했다”고 평

● 박현숙 첫 금에 평양시민 ‘환희’(8/16, 조선신보; 8/12, 조선중앙TV)

- 박현숙(23)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여자역도 63kg급에서 우승해 북한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자 올림픽 메달에 목말라 하던 평양시민들은 짜릿한 ‘환희’를 맛봤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신보는 조선중앙TV가 12일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박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보도한 뒤 “올림픽 소식에 눈과 귀를 강구던(기울이던) 국내의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모두가 환성을 올리는 환희의 순간이었다”고 당시 표정을 소개

● 北, 中 올림픽 기간 ‘아리랑’관광 홍보(8/16,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은 8일 시작된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체조 ‘아리랑’ 관람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
- 방송은 북한의 ‘조선여행사’가 미국 내 관광상품 판매 대리인으로 ‘미주동포전국연합’의 서건일 부회장을 선정한 데 이어 미주 한인동포들을 겨냥해 ‘아리랑’ 공연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 2~7박 일정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
- 방송은 “1인당 비용은 2박3일 기준으로 1천달러 정도”로 “관광객들은 중국 선양에서 조선여행사 직원의 안내로 비자와 항공편을 예약한 뒤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 북한관광 상품에는 아리랑 관람을 포함해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인민대학습당 등 평양시내와 개성, 향산, 남포를 둘러보는 일정이 들어있음.
- 서건일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아리랑 관람을 원하는 미주 한인들의 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관광비용도 싸게 책정했다”며 “여태까지 폐쇄됐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북한 사격스타 김정수, 도핑 적발(8/15, 국제올림픽위원회)**
 - 북한의 사격스타 김정수가 도핑에 적발돼 메달을 박탈 당했음. 국제 올림픽위원회(IOC)는 15일 남자 50m 권총과 10m 공기권총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북한 김정수가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

- **DHL, 9월 北 평양국제영화제 후원(8/15, 연합뉴스)**
 - 북한이 9월 평양에서 개최하는 제11차 평양국제영화제를 평양에 지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택배전문기업인 DHL이 후원, DHL은 15일 벨기에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평양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pyongyanginternationalfilmfestival.com)를 통해 “제11회 평양국제영화제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영화제가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영화산업에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 북한의 유일한 국제영화제인 평양국제영화제는 1987년부터 2~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데 제10차 영화제는 2006년 9월 개최, 올해 영화제는 9월 17~26일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장편, 다큐멘터리, 단편 등 부문별 작품 경합은 물론 특별영화 상영과 영화 교류를 위한 협의도 진행

- **北쌀값 다시 오름세(제189호, 좋은벗들소식지)**
 -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때 내림세였던 북한내 쌀값이 이달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좋은벗들이 주장
 - 지난 5월 kg당 4천원까지 올랐던 쌀값은 미국의 식량지원 소식이 퍼지면서 하락하기 시작해 지원 식량이 분배되자 지난달 하순엔 2천300~2천400원으로까지 떨어졌으나 8월 초 다시 2천900~3천50원으로 올랐음.

- **北에서도 ‘썬크림’ 사용 확산(8/14, 조선신보)**
 - 북한 평양에서 이달 초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시작된 이후 여성 출연자들 덕분에 ‘썬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특수를 맞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각 지역 공업품 상점과 직매점들에서 ‘은하수’라는 상표의 자외선방지 크림이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출연자들에게 인기”있다고 소개

- **北측 백두산 골짜기에 ‘만년 얼음동굴’들(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측 백두산의 일부 골짜기에 사시사철 눈과 얼음이 녹지 않는 최장 200m의 얼음동굴들이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



- 뉴질랜드, 北과 철새 공동조사(8/14, 자유아시아방송)
 - 뉴질랜드 민간 철새연구소가 도요물떼새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방안을 북한 당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이르면 2009년 4월 북한의 조류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 압록강 하구 철새 서식지에 대한 환경연구를 시작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국가 학위.학직 수여(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13일 과학연구와 교육사업에 적극 기여한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학직을 수여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화학공학연구소 연구사 리호경에게 ‘월사’ 칭호가 주어졌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대학원) 지도교원 김원일, 평양건설건재대학 교원 리수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사 리행호,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 연구사 림춘렬, 중앙광물 자원조사단 교관 허성권, 평양의학대학 실장 김태원, 의과학원 정신신경의학연구소 연구사 정연우 등에게는 ‘후보원사’칭호가 수여됐다고 통신은 보도

-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8/13, 조선중앙통신)
 - 청년절(8.28)기념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13일 평양 3대 혁명전시관에서 김종린 당 비서와 변영립 국가과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시회에는 청년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내놓은 수 백건의 정보기술(IT)제품을 비롯해 2천여 건의 발명 및 신기술 혁신자료들이 출품됐다고 통신은 소개

- 北금메달 박현숙은 ‘공훈체육인’(8/13, 연합뉴스)
 - 베이징 올림픽 여자역도 63kg급에서 우승해 북한 역대 사상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겨준 박현숙(23) 선수는 남한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전도유명한 선수로 ‘공훈체육인’ 칭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

- 北오가산자연보호구에 수령 1100년된 주목(8/3, 노동신문)
 - 북한 자강도 화평군에 있는 오가산자연보호구에는 1천330종의 동식물 자원이 분포돼 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12일 입수된 이 신문은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아한대성과 온대성 식물분포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식물의 종 구성이 다양하다면서 이곳에는 739종의 식물이 자라고, 39종의 산짐승, 135종의 조류, 10종의 파충류, 8종의 양서류 등이 서식한다고 보도



- **北과학원, AI 亞形 감별법 개발(8/11, 조선중앙통신)**
 - 국가과학원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과 전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 ‘1~15까지의 HA아형(亞形) 감별법’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성 김 특사 방중에도 北美 회담 무산(8/16, 연합)**
 -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성 김 대북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으나 북한 측 협상 파트너가 중국에 오지 않아 북미 회동이 결국 무산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성 김 특사의 방중 기간에 협상 파트너인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한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 운항일인 14일을 비롯해 16일에도 리국장을 비롯한 북한 측 인사는 오지 않음.
 - 이를 두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아직까지 검증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어 북미 회담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
 - 한편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서 회동을 갖고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인 북핵 프로그램 검증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방안을 협의

- **北신문, 美국방전략보고서 비난(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미 국방부가 새 ‘국방전략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대화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반발, 신문은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국방전략보고서는 “국방성 내부 문제가 아니라 현 미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며 “미국이 흑심을 갖고 우리 나라와 대화를 표방하며 대 조선 적대시 압살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도 자기의 결심대로 결정권을 선택하고 나갈 것”이라고 주장

나. 북·미 관계

- **美조지아대, 북한 식량난 해소 적극 지원(8/14, 연합)**
 - 미국 조지아대학(UGA)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종자개발과 농업기술의 이전 등 농업분야에서의 대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 중, 조지아대는 지난 7월15일부터 19일까지 스캇 앵글 농대학장과 대학부설 국제문제연구소(GLOBIS) 소장인 박한식 교수 등을 평



양에 보내 북한 농업과학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난 2001년 조지아대 농대와 농업과학원간에 체결했던 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다. 북·러 관계

● 김영남, 러 대통령에 축전(8/1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 광복 63 주년을 맞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축전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보다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

● 러 대통령, 남북 건설적 협조발전 지지(8/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5일 광복 63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교환하고 양측 간의 관계 발전을 기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 호칭 없이 국방위원장 명의로만 보낸 축전에서 양측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면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밝혔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지역 전반의 안전과 안정 강화를 위해 조선의 북과 남 사이의 건설적인 협조발전을 지지한다”고 강조

라. 북·일 관계

● 조총련 교육간부 대표단 방북(8/16, 평양방송)

- 송근학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조총련 초중급학교 교장대표단과 강경익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총련 교육간부 대표단이 1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日 독도영유권 지속 땀 파국사태 초래(8/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분쟁 조작 책동”을 계속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파국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 신문은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위험한 군사적 책동’ 제목의 글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들고 나와 긴장을 격화시키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재침전쟁을 일으킬 위험한 흥계를 꾸미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

● 日 식민지배·자원약탈 배상해야(8/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지하자원 약탈에 대해 일본이 “배상”



할 것을 촉구, 신문은 광복 63주년을 맞은 15일 ‘일제의 낱강도적인 지하자원 약탈죄행’ 제목의 글에서 “일본의 과거역사는 침략과 약탈의 역사”라며 “범죄의 역사는 덮어버릴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다”고 강조

● **日·北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8/14, 연합)**

- 일본과 북한은 13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끝난 6자회담 실무회의에서, 북한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가능한 한 가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
- 또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북한의 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북한이 조사의 진행 결과를 일본에 수시로 전달하며 ▲일본이 관계자를 면담하고 관련 장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 등 3가지 방안에 합의
- 일본은 북한의 조사위원회가 발족하는 시점에 맞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중 ▲항공 전세기의 입국 불허와 ▲북한 당국자의 입국 금지 등 인적 왕래 규제 등 2가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

● **북-일우호여성대표단이 방북 후 귀국(8/13, 조선중앙방송)**

- 시미즈 스미코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일본부인연합회’ 대표를 단장으로 한 북-일우호여성대표단이 13일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 ‘조사 후 日향배’에 주목(8/13, 조선신보)**

- 북한이 일본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재조사의 성공을 위해선 일본의 후쿠다 정부가 “재조사의 귀결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조선신보가 13일 주장
- 조선신보는 “2004년에도 재조사는 있었지만 당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대결정책을 버리고 싶지 않아 ‘가짜유골설’을 꾸며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도 “조(북)일관계가 악화된 속에서 재조사의 ‘결과’를 받게 되면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일본의) 반대세력들은 기승을 피우며 두 나라 정부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자고 할 것”이라며 주문

마. 기타외교 관계

● **駐쿠바 대사관 카스트로 생일축하연(8/16, 평양방송)**

-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82회 생일을 맞아 8월 13일 쿠바 공산당과 외무성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축하 연회를 열었다고 평양방송이 16일 보도



● 北총리, 베트남 재해 위로전문(8/16,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는 16일 응웬 쩌 쩌 중 베트남 총리에게 전문을 보내 북부 베트남지역의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위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 미래숲, 평양 숲섬 11만㎡ 임대(8/17, 연합)

-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식수운동을 벌여 온 (사)미래숲(대표 권병현)이 지난 5월 북한의 대남 경협창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와 평양 시내 숲섬의 부지 10만8천900㎡(3만3천평)를 5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됨.

● 7월 대북 관광객 전월대비 62% 감소(8/17, 통일부)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따른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대북 관광객이 전달에 비해 6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에 따르면 7월 대북 관광객은 전달인 6월의 5만6천776명에 비해 62.2%,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9.1% 감소한 2만1천445명에 그침. 특히 금강산 관광객은 전달에 비해 77.9% 감소한 9천838명에 불과했고 개성 관광객도 전달 1만2천161명에서 4.5% 정도 줄어든 1만1천607명으로 집계됐음.
- 7월 남북간 교역액은 1억8천74만8천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달 1억8천356만4천 달러에 비해서는 1.5% 감소하고 6월 1억4천653만8천 달러에 비해서는 23.3% 증가, 거래 유형별로 보면 개성공단 등 상업적 거래는 1억7천438만7천 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 1억3천536만7천 달러에 비해 28.8% 증가
- 반면 대북지원과 사회문화 관련 거래 등 비상업적 거래는 636만1천 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 4천819만7천 달러에 비해 86.8%가 줄어듦.

● 북 어선 충돌, '동이1호' 거제 귀항...해상서 조사(8/15, 연합)

- 8월 12일 새벽 북한 해역에서 북측 어선과 충돌했던 남측 모래운반선 동이 1호(658t)가 14일 오후 늦게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 정박, 13일 오후 6시 40분께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남측으로 넘어온 동이 1호는 동해를 거쳐 당초 예정시간보다 4시간여 늦은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거제시 고현항 앞 해상에 닿을 내림.

● 北, '종전 형식' 초청장 다시 보내 (8/14, 연합)

- 북한은 최근 자신들이 남한의 방북 희망자나 단체들에 보낸 초청장



의 형식과 문구가 바뀐 것에 우리 정부 당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초청 대상측의 요청에 따라 새로 종전 형식과 문구의 초청장을 보내온 것으로 14일 확인

- 북한은 8월 들어 남한 단체에 ‘초청장’이라는 제목없이 ‘○○ 앞’이라고 단체명만 적은 문서를 보내고, 내용도 ‘○○을 ~에 초청하며’라는 문구를 ‘○○가 ~를 방문하는 데 동의하며’로, ‘방문(또는 체류) 기간 편의와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체류기간 편의를 보장’한다고 바꿈.
 - 이에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에 신변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며 북측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초청장을 받아낼 것을 권고했고, 북측은 이들 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단체에 종전 양식의 초청장을 다시 보내고 있음.
- **北, ‘편의보장’에 ‘신변안전’ 포함돼(8/13, 연합)**
 - 북한이 최근 남한의 방북 희망자에게 보내는 초청장에서 ‘초청’이라는 말 대신 ‘동의’라는 표현을 쓸 뿐 아니라 ‘편의 제공과 신변안전 보장’이 ‘편의 보장’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
 - 이에 따라 통일부는 방북자의 신변안전을 우려, 방북승인을 신청한 민간 단체들에 방북에 앞서 북측에 팩스를 보내 ‘초청’으로 고치고 ‘신변안전 보장’ 대목을 다시 넣어달라고 요청할 것을 권유하며 승인을 보류했다가 단체들의 반발과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방북을 허용
 - **北전통문, 선박 충돌은 남측 부주의 때문(8/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남한 모래운반선과 북한 어선간 충돌사고에 관한 대남 통지문에서 “남측 모래운반선 선장이 피곤해 하는 선원들을 재우고 혼자서 배를 몰다가 앞에 있는 우리(북)측 어선을 가려보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고 사고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북한의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북측 군사 실무책임자’ 명의로 된 통지문은 이러한 사고 경위에 대해선 “모래운반선 선원들이 일치하게 시인하였다”고 덧붙였다.
 - **北, 금강산 면세점 물품 반출 불허(8/12, 통일부)**
 -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2일 “어제 금강산 면회소의 물품을 반출하려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반출하지 못했다”고 밝힘. 통일부 관계자는 “빼와야 하는 식료품이 900박스에 달해 전수검사를 해야한다며 북측 세관이 물품 반출을 불허했다”며 “추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반출날짜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 **南北선박 동해상서 충돌…2명 실종(8/12, 연합)**
 - 남한측 모래운반선과 북한측 어선이 12일 오전 동해상에서 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 사고 직후 남측 선원들이 북한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북측을 상대로 사실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

-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오늘 새벽 2시25분께 북한 장전항 동북쪽 4.9마일 해역에서 남측 모래운반선과 북측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측 어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은 우리 선박에 의해 구조됐고 2명은 실종상태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통신은 보도, 남측 모래운반선은 부산의 영암대불건설업 소속 ‘동이 1호’(658t)로 장전항 일대의 모래를 적재한 뒤 거제항으로 운항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고, 북측 어선은 20마력 급의 소형인 것으로 전해짐.
- 사고 당시 동이 1호에는 10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우리측 인명피해는 없었음. 사고 직후 동이1호는 곧바로 장전항으로 이동했으며 탑승 선원들은 현재 북측 당국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 받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발표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성 김 특사 방중에도 北美 회담 무산(8/16)

-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성 김 대북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으나 북한 측 협상 파트너가 중국에 오지 않아 북미 회동이 결국 무산됐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성 김 특사의 방중 기간에 협상 파트너인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한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 운항일인 14일을 비롯해 16일에도 리 국장을 비롯한 북한 측 인사는 오지 않았음.
- 주중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성 김 특사가 16일 오후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 기간 북한 측 인사와의 회동은 없었다”고 확인했음.
-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리근 국장이 오늘 베이징에 오지 않았다”면서 성 김 특사의 방중기간에 북핵 프로그램 검증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양자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음.



● 韓.美 뉴욕서 북핵검증 협의(8/16)

-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서 회동을 갖고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인 북 핵프로그램 검증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음.
- 맨해튼의 주(駐)유엔 미국대표부에서 2시간 가까운 협의를 마친 뒤 힐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북한의 검증계획서를 받는대로 가능한 빨리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며 검증체계 마련이 테러지원국 해제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고 검증은 국제 기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
- 힐 차관보는 “북한이라고 해서 (국제기준과) 다르게 할 생각은 없다. 따라서 북한은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북핵 검증체계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음. 힐 차관보는 인내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미국은 검증계획서를 받는 대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를 준비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음.
- 김 본부장은 이날 회동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검증체계 마련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김 본부장은 또 남북대화의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도 논의했다면서 남북대화의 중요성과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전폭적 지지를 보였다고 소개했음. 김 본부장은 회의에서 검증 문제와 비핵화 2단계(불능화 및 신고) 마무리, 3단계 협상, 남북대화에 관한 4가지 정도의 의제를 협의했다며 “미국과 북한 양자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검증 이행계획을 조속히 완료해서 테러지원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음.
- 그는 또 이번 협의에서 2단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북측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5개국의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를 10월말까지 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심양에서 열린 북·일 간의 양자협약에도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일본이 앞으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조속히 참여토록 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 韓美 뉴욕-워싱턴서 북핵검증 현안 협의(8/15)

-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검증 방안도출을 위한 미-중, 한-미, 한-일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협력이 베이징(北京)에 이어 뉴욕, 워싱턴, 도쿄(東京)에서 잇따라 열림.
- 미 국무부는 14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금요일(15일) 오전 뉴욕에서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



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6자회담의 진전방안, 특히 검증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북핵협상 진전을 위해 김 본부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본부장은 뉴욕 회동에 이어 주말인 16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무부 당국자 등과 후속 협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 성 김 특사 방중…北美회담은 사실상 무산(8/14)

- 외교계에서는 성 김 미국 대북 협상특사가 방중 기간에 협상 파트너인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한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 운행일인 이날 리 국장을 비롯한 북한측 인사는 아무도 오지 않았음.
-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리근 국장이 오늘 베이징에 오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현재로서는 북핵 프로그램 검증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양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음. 김 특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지연된 배경을 설명하고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핵 검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성 김 美대북특사 다시 방중(8/13)

- 성 김 미국 대북 협상 특사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검증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13일 또 다시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국무부가 12일 밝혔다. 국무부는 “김 대북협상 특사가 내일 베이징(北京)으로 출발한다”면서 “그는 6자 회담의 일환으로 강력한 검증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관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김 특사가 현재로서는 이번 방중 기간에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검증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명단 삭제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강력한 검증체제와 검증의정서”라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명단삭제가 진행될 수 없음을 우리는 그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부시 후주석에 북한문제도 언급(8/12)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중국 현지시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시 대통령은 11일 중국 현지에서 미 NBC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중국의 인권과 언론자유, 티베트 문제뿐만아니라 북한과 이란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은 미-중관계에 언급,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인권문제 등에서) 지렛대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면 안되고, 북한과 이란문제 같은 공통의 관심분야를 찾을 수 있고, 종교 및 정치적 자유에 대한 상대의 관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건설적인 개입(engagement)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美 “검증합의까지 北테러국 해제 안해”(8/12)

- 국무부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강력한 핵 검증 체제에 합의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위한 ‘의회 통보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 핵프로그램 검증과 관련, 북미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 지에 대해선 “북한은 핵검증체제를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나. 미·북 관계

● 美서 단식농성 탈북자 한때 의식잃어(8/17)

-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내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조진혜(여.21)씨가 16일 한때 의식을 잃었음. 조씨를 돕고 있는 이희문 목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진혜양이 오늘 낮 12시께 의식을 잃어 조지타운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호송됐다”면서 “다행히 2시간여만에 깨어났다”고 전했다.
- 지난 3월 미국 망명이 허락돼 시애틀에 정착한 조씨는 지난 달 24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뒤 올림픽 기간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이라는 반(反)인권적 조치를 폭로하고 이를 중단토록 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결심, 3일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홀로 단식 농성을 벌여왔음.

● 美조지아대, 북한 식량난 해소 적극 지원(8/13)

- 미국 조지아대학(UGA)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종자개발과 농업기술의 이전 등 농업분야에서의 대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조지아대는 지난 7월15일부터 19일까지 스캇 앵글 농대학장과 대학부설 국제문제연구소(GLOBIS) 소장인 박한식 교수 등을 평양에 보내 북한 농업과학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난 2001년 조지아대 농대와 농업과학원간에 체결했던 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음. 조지아 농대는



특히 북한의 식량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종자개발·개량 및 보급을 비롯해 선진 농업기술의 이전, 양계산업 육성 등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 조지아 농대는 북한 농업과학원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초청했고, 북한 대표단은 국무부의 비자발급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올 가을 조지아를 방문해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방북단의 일원이었던 박한식 교수가 12일 밝혔다.

● 마이클 그린 “北, 美 새정부 출범까지 시간벌기”(8/12)

-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12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에서 “만일 미 행정부가 검증없이 (테러지원국과 같은) 제재를 풀어준다면 그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린 전 국장은 “따라서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거나, 제재를 없애기 전에 북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밝혔음.
-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최단시간이었던 11일을 놓친 것은 외부의 사찰관들이 핵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 중·북 관계

● “北, 中 올림픽 기간 ‘아리랑’관광 홍보”<VOA>(8/16)

- 북한은 지난 8일 시작된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체조 ‘아리랑’ 관람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6일 보도.
- 방송은 북한의 ‘조선여행사’가 미국 내 관광상품 판매 대리인으로 ‘미주동포전국연합’의 서건일 부회장을 선정한 데 이어 미주 한인 동포들을 겨냥해 ‘아리랑’ 공연이 끝나는 다음달 30일까지 2~7박 일정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했음. 방송은 “1인당 비용은 2박3일 기준으로 1천달러 정도”로 “관광객들은 중국 선양에서 조선여행사 직원의 안내로 비자와 항공편을 예약한 뒤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 中 “北日 납치문제 협상 진전 환영”(8/13)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 일본이 선양에서 진행한 협상을 통해 적극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음. 친 대변인은 “중국은 양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우리는 북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북한과 일본은 13일 열린 북핵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급적 재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올 가을까지 완료키로 합의.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재조사에 착수하면, 일본은 곧 바로 2006년 이후 북한에 적용했던 제재들의 일부를 해제키로 하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음.

라. 일·북 관계

● 北 신문 “日 독도영유권 지속 땀 파국사태 초래”(8/16)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분쟁 조작 책동”을 계속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파국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
- 신문은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위험한 군사적 책동’ 제목의 글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들고 나와 긴장을 격화시키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재침전쟁을 일으킬 위험한 흥계를 꾸미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북·일 ‘납치재조사위, 대북제재 일부해제’ 합의(8/13)

- 북한과 일본은 13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가을까지 재조사를 완료하기로 합의. 북핵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일본측 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측과 이틀간 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 같이 밝혔다.
- 사이키 국장은 “권위를 지닌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며, 재조사가 올 가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에 일본은 2006년이후 북한을 상대로 부과했던 제재들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여기에는 북한 정부 관리들의 일본 방문 및 북한발 전세계 취항 허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소식통은 일본이 “북한과 일본 양국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北日, 선양서 납치 재조사 이틀째 회담(8/12)

- 북한과 일본은 12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이틀째 회담을 열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5시간 가량 협의를 가진 뒤 휴식을 갖는 등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일본측 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휴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측이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음을 시사

- 사이키 국장은 11일 회의에서 재조사의 주체와 대상, 기간 등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측은 이에 대한 자체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재조사 방법 등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北日 회담, 평양선언에 기초해야” <조선신보> (8/11)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리는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조일관계 문제를 납치문제로 왜소화시키는 일본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2개월 만의 조일협상도 서로의 대립점을 확인하는 자리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선신보는 ‘조일정부간 실무회담, 후쿠다 정권의 의지 판별’ 제하의 선양발 기사에서 지난 6월 베이징 회담 이후 2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이 “조(북)·일 관계개선에 대한 후쿠다 정권의 의지를 조선측이 보다 명백히 가려보는 자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北日 선양서 국교정상화 실무협상 착수(8/11)

- 북한과 일본이 11일 중국 선양(瀋陽)의 한 호텔에서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를 열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이틀간으로 예정된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6월 양측이 합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관련, 구체적인 재조사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합의가 도출될지가 최대 관심사.
- 이날 실무회의에는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의 송일호(宋日昊) 조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일본측은 재조사 문제를 이번 협상에서 가장 우선 논의키로 정하고 실무회의에 응했다.

마. 러·북 관계

● 러 대통령 “남북 건설적 협조발전 지지”(8/15)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5일 광복 63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교환하고 양측 간의 관계 발전을 기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 호칭 없이 국방위원장 명의로만 보낸 축전에서 양측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면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전과 안정 강화를 위해 조선의 북과 남 사이의 건설적인 협조발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 선린관계의 전통이 앞으로도 러조(러·북) 협조를 여러 분야에 걸쳐 강화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바. 기타

● “DHL 내달 北 평양국제영화제 후원” <北사이트> (8/15)

- 북한이 다음달 평양에서 개최하는 제11차 평양국제영화제를 평양에 지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택배전문기업인 DHL이 후원함. DHL은 15일 벨기에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평양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pyongyanginternationalfilmfestival.com)를 통해 “제11회 평양국제영화제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영화제가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영화산업에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북한의 유일한 국제영화제인 평양국제영화제는 1987년부터 2~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데 제10차 영화제는 2006년 9월 열렸음. 올해 영화제는 다음달 17~26일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장편, 다큐멘터리, 단편 등 부문별 작품 경합은 물론 특별영화 상영과 영화 교류를 위한 협의도 진행됨.
- 홈페이지는 DHL 외에도 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려관광과 영국, 독일, 스웨덴대사 등도 이 영화제를 후원한다고 소개했음.

● 北 평양에 세계 백만장자 240명 ‘운집’ (8/11)

- 전 세계 백만장자들이 벌이는 고급 자동차 행진인 ‘검볼 랠리’ 참가자들이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평양에서도 1박하며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게 된다고 검볼랄리 측이 인터넷홈페이지(www.gumball3000.ro)에서 밝혔음.
- 검볼랄리측은 랠리 10주년을 맞아 올해 참가자들은 미국에서 랠리를 마치고 다음 랠리를 벌일 중국으로 가기 앞서 “전 지구적 우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미증유의 북한 1박을 경험하게 되고 북한판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체조를 관람하게 된다”고 설명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1일 이 랠리 대회의 맥시밀리언 쿠퍼 회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랠리 참가자 240명 전원을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SPI서 ‘글로벌호크 판매가능’ 제시(8/11)

-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1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미측은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를 위한 내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특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 대 정부의 보증’ 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작년 말부터 검토에 착수해 올초 내부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군사당국자간 접촉 등에서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2020’ 조정안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관계자는 “첨단전력 도입의 우선순위 뿐 아니라 국방개혁 2020의 목표시기 조정 작업과 연계해 글로벌 호크 도입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긍정 또는 부정도 아닌 백지 상태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 위성 수준에 버금가는 전략무기.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 가량이며 작전반경은 3천km, 대당 가격은 4천5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中 정부, 이어도 자국영토 주장 삭제(8/13)

-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던 중국 정부의 웹사이트가 해당 내용을 삭제했음.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은 지난 12월 24일자 자료에서 이어도를 중국 영토로 소개해 왔으나 13일 이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음.
- 이 자료에는 그 대신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다”면서 “귀속 문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음.
- 그럼에도 이 자료는 “이어도는 고대부터 중국 어민들의 어장이었다”면서 “당,송,명,청대의 중국인들이 이 섬에 대한 각종 문헌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음.
-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150km 떨어져 있는 반면 이어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섬 퉁다오(童島)까지의 직선 거리는 247km나 돼 우리 나라에 훨씬 가까운 데다 현재 우리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 한중 외교장관..북핵-양자 현안 논의(8/13)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방한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두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 5월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에 합의해 양국관계가 새로운 발전 국면에 진입했음을 평가하고 이달 말 예정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음.
- 두 장관은 또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증체계가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난달 6자 합의에 따라 비핵화 2단계(불능화 및 신고)를 마무리하고 3단계(핵포기)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 특히 이날 회담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가능한 시한인 11일이 지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북핵 검증체계 구축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 장관은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고 이에 양 부장은 중국 정부가 남북대화 및 화해협력을 확고히 지지하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음. 유 장관은 회담에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한 양 부장을 환영하는 한편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했음.

● 李대통령 “북핵문제 진전 中역할 기대”(8/13)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북핵문제 해결 방안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한 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양 외교부장도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음.
- 이 대통령은 이어 이달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후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보다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방한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음.
- 이날 접견에는 우리측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재신 외교비서관 등이, 중국측에서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 등이 배석했음.

● 韓中 고위급전략대화 올 가을 개최 전망(8/12)

- 한국과 중국은 빠르면 오는 9월 안보 문제가 포함되는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달 말께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정상회담에서 지난 5월말 베이징에서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할 전망이다.

-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방안은 한·중 양국의 외교담당 수석차관을 단장으로 봄과 가을 등 연간 두차례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 올해 빠른 시일내에 첫 회의를 서울이나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 中언론 “韓 독도지배에 日 무력사용 못해”(8/11)

- 중국의 시사잡지인 중국신문주간은 이 날짜 최신히에 실린 ‘독도 분쟁 배후의 군사역량’이란 기사를 통해 일본이 군사적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일본이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선불리 군사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므로 한국이 계속적으로 독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잡지는 “종합적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이 한국의 소홀한 틈을 타 독도의 경비대를 공격함으로써 독도를 손에 넣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경우 한일간 독도를 둘러싼 장기적인 군사 대치가 불가피한데다 러시아 등 주변 열강이 이를 빌미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은 큰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이 잡지는 군사력이 낙후된 필리핀이 주변 섬을 장기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음. 한국과 일본 모두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태도 역시 일본이 선불리 군사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라고 잡지는 분석했음.

다. 한·러 관계

● 한·러 서(西)캄차카 유전광구개발 ‘물거품’(8/13)

- 한국석유공사 등 국내 기업들이 40%의 지분을 갖고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서(西)캄차카 유전개발사업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음. 자원대국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의욕적으로 벌이던 해외유전개발 사업이 탐사 단계에서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됨. 13일 정유업체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광구 허가감독청인 러시아 연방 지하자원청은 지난달 29일 한국 컨소시엄이 러시아 국영회사인 로즈네프트와 공동으로 참여중인 서캄차카사업의 탐사 라이선스 연장 신청을 기각했음.
- 라이선스 취득과 연장과 관련한 행정업무는 로즈네프트가 담당하고 있으며 5일 로즈네프트 부사장과 석유공사 부사장, 주러대사 등이 에너지부 차관을 면담하고 라이선스 연장에 대한 협조와 재심의를 요청했음.
- 서캄차카 해상광구는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로즈네프트가 2003년



러시아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따냈으며 한국은 이듬해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석유공사와 로즈네프트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 사업의 공동 계약자가 됐다. 로즈네프트와 석유공사 등 7개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6대 4의 지분으로 '캄차카네프트가스'(KNG)라는 공동 운영사를 세우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7월 말 종료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에 라이선스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음. 한국컨소시엄에는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가스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중합상사, 금호석유화학 등이 참여하고 있음.

라. 한·호주 관계

● 한-호주 정상, FTA 예비협의 개최협의(8/11)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했음.
-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 양국간 교역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최근 양국 민간 공동연구결과를 환영하고, 조만간 정부간 예비협의를 열어 FTA 범위와 기대수준 등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음.
- 이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제1위 광물자원 교역, 투자 대상국인 호주와의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와 호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으며, 러드 총리는 LNG(액화천연가스)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요청했음.
-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양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자고 합의했음. 특히 경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안보, 국방 등의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
- 이날 정상회담 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피터 로위 주한호주대사는 양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등 교육 및 직업교육의 상호 학위인정에 관한 협력 ▲교육분야 행정가, 연구자, 교사, 학생 교류 및 확대에 관한 협력 ▲공동 강연, 연구, 출판에 관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양국간 '교육협력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음.

● 한-호주 오늘 정상회담...FTA 논의(8/11)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 양 정상은 새 정부 출범후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LNG(액화천연가스) 등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정치·경제·외교·안보·국방 등 제반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북핵문제 및 동아시아 지역 현안 협력,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분야 협력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 또 양국간 유학생 상호교류 확대와 함께 초·중·고교 및 직업교육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주 총리가 방한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라면서 “양국간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평양선언 이후 北日관계 주요 일지(연합뉴스, 8/13)

- 북한과 일본은 13일 새벽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올 가을까지 재조사 완료 등에 전격 합의했음.

다음은 평양선언 이후 북-일관계 주요 일지.

- ▲2002년 9월17일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 전격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평양선언 서명
- ▲2002년 10월15일 = 납치 피해자 5명 일본 귀국
- ▲2002년 10월29일 = 쿠알라룸푸르서 제12차 국교정상화 협상
- ▲2004년 5월22일 = 고이즈미 총리 재방북, 정상회담. 납치 피해자 가족 5명 귀국
- ▲2004년 7월18일 = 납치피해자 소가 히토미씨 가족 귀국
- ▲2004년 11월 9일 = 평양서 북일 실무자 협의, 北 요코다 메구미 유골 전달
- ▲2004년 12월24일 = 日정부, DNA 감정 결과 요코다 유골 가짜 발표
- ▲2005년 9월19일 = 6자회담 공동성명, 북일 국교정상화 조치 약속
- ▲2006년 2월 4일 =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 ▲2006년 7월 5일 = 北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7발 발사. 日정부,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제재조치
- ▲2006년 10월 9일 = 北 핵실험. 日정부, 인적·물적 교류 차단 제재조치 발동
- ▲2007년 2월13일 = 6자회담 합의, 북일국교정상화 실무그룹 설치
- ▲2007년 3월 7일 = 하노이서 제1차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 ▲2007년 9월 5일 = 몽골서 제2차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 ▲2008년 6월 7일 = 베이징서 북일간 비공식 실무자 협의, 납치 재조사 원칙 합의
- ▲2008년 8월11일 = 선양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납치 재조사 방법 시기 합의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13/0511000000AKR20080813035200073.HTML>



[참고 2] 북일 납치피해자 재조사 합의 내용 요지(연합뉴스, 8/13)

- 북한과 일본은 13일 새벽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올 가을까지 재조사 완료 등에 합의했음.

다음은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실무회의 합의 내용 요지.

◇총론

- ▲양측은 북한이 실시하는 납치문제 조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본측이 실시할 조치 및 쌍방의 조치 실시 타이밍에 합의함.

◇북한의 납치 피해자 재조사

-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납치 당한) 생존자를 발견해 귀국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와 기타 행방불명자가 포함되는 등 모든 납치 피해자가 대상임.
- ▲권한이 부여된 북한의 조사위원회가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올 가을에 종료함.
- ▲북한은 진척 정도를 일본측에 수시로 통보하고 협의함. 생존자가 발견된 경우는 일본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그후 처리 방식을 협의함.
- ▲일본측이 관계자와 면담하고 관계자료를 공유하며 관계 장소를 방문하는 것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도록 (북한측이) 협력함.
- ▲조사에 관련된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협의함.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 ▲북한측이 재조사를 개시하는 것과 동시에 인적 왕래와 전세 항공편에 대한 규제 해제를 실시함. 구체적인 타이밍은 조정함.

◇기타 북일 양측의 조치

- ▲북한의 일본 항공기 요도호 납치범들의 인도에 협력함. 인도적 지원 물자 수송 목적의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는 재차 협의함.

◇기타

- ▲일본측은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려는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핵과 미사일 등 현안에 대해서도 북한측에 해결을 위한 행동을 요구함.
- ▲북한측은 조총련에 대한 탄압과 일본에 의한 대북 조치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13/0511000000AKR20080813045100073.HTML>